

미세먼지 차단 상품도 잘 나간다

창문형 필터 판매량 73%·산소발생기 68% 증가 공기청정기능 갖춘 제품도 불티...해조류도 판매 급증

소비자들이 미세먼지와 '장기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집안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한편, 내부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공기청정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당장, G마켓의 경우 최근 한 달간 미세먼지를 차단하면서도 환기가 되는 창문형 필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대기오염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워 지자 산소발생기 판매량도 68% 증가했

다. 외출 후 미세먼지에 노출된 가방이나 이틀 장난감, 각종 소품 등을 살균하는 공기-오존 살균기 판매량은 무려 292%나 뛰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집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연소 시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 원적외선을 방출해 조리를 돕는 하이브리드레인지 등은 같은 기간 판매량이 각각 101%와 97%씩 늘어났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알긴산'이라

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 몸속 미세먼지나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해산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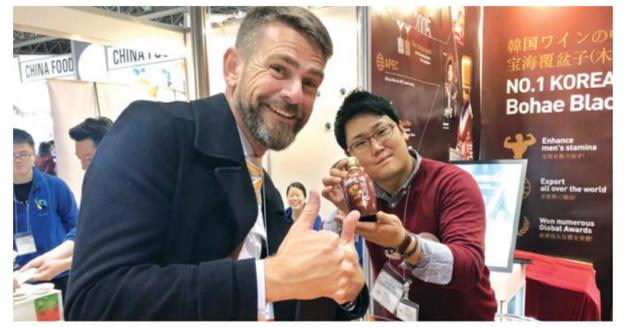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하 식품관에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수산물 대전'을 연다. 김, 미역, 다시마 판매도 늘면서 완도 A업체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감-다시마 등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제품도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는 추세다. 이마트의 경우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에어컨이 전체 에어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7년 22%에서 지난해 35%로 늘어났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에어컨은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감지해 자동

으로 청정 운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지름 0.3㎛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제거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공기청정기는 4계절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매일 공기청정기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 지난 1~2월 판매도 작년보다 1.5배에 달했다. 대우위니아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8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이달 5일까지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뛰었다. 불철, 황사까지 걸릴 수 있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가전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보해복분자 '일본 식품-음료박람회'서 인기

국제관에 홍보부스 마련 바이어 등 2000여명 방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만든 보해복분자주 '2019일본 식품-음료박람회'(FOODEX 이하 푸덱스)에서 전 세계 식품 및 음료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20개 국가에서 판매중인 보해복분자는 2019 일본 푸덱스를 통해 더 많은 나라로 수출될 전망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푸덱스에 참가해 보해복분자주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알렸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푸덱스는 전 세계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식품-음료 박람회다.

보해는 복분자주를 알리기 위해 한국관이 아닌 국제관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에 나섰고, 지난 4일동안 독일과 필리핀, 인도 등 주류업체 관계자들 2000여 명이 보해 홍보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이들 바이어들은 보해복분자주의 부드러운 맛과 향에 놀라워 했으며 남성 스태미너에 좋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보였다.

독일의 식품업체 CEO는 한국의 뛰어난 발효숙성 기술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기술로 만든 보해복분자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럽 지사에서 보해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보해양조 마케팅본부 이승은 파트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술인 보해복분자주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 푸덱스에 참가하게 됐다"며 "푸덱스에서 만난 해외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7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이한 지역의 결손가정 청소년 20명에게 교복을 후원하고 자 마련했으며,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추천받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명은 광주은행 본점으로 초청을 받아 교복 후원 증서와 고급 운동화를 전달받고, 송중욱 은행장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새 교복을 입고 즐겁고 건강하게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효성중공업 등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화

13개 업체 참여 '수소에너지네트워크' 공식 출범

민간 기업들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국내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하 하이넷)가 공식 출범했다.

수소충전소는 설치 비용(약 30억 원)이 높고 운영(연간 약 2억원) 과정에서도 수익이 나기 어려워 그간 민간 기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

축해왔다.

이번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지자체·연구기관 중심, 보조금 중심의 방식으로는 조기에 구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13개 회사가 1350억원을 출자해 초기 위험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추진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은 오는 2022년까지 정부 구축 목표(310개)의 3분의 1 수준인 10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이넷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 효성

중공업 등 수소충전소 공급업체, SK 등 LPG 공급 및 LPG 충전소 운영업체,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며 수소충전소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간 협력을 통해 설치 비용을 현 30억원에서 20억원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넷은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충전소의 효율화, 규제-제도 개선, 서비스 향상에 힘을 계획했다.

유종수 하이넷 대표이사는 "올해부터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4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3 17 29 34 39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158,252,883	17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8,602,081	56
3 5개 숫자일치	1,223,608	2,682
4 4개 숫자일치	50,000	113,125
5 3개 숫자일치	5,000	1,851,371

종이컵 사용안하기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한전 광주전남본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 1,800여 명의 직원들은 "종이컵 사용안하기" 운동을 통한 전 세계적 환경보호 캠페인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본부 전체 88개 부(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며 릴레이식으로 전개된다. 선정된 사업소의 사업소장과 부(팀)원들이 함께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

양한 포스트 인종상을 한전 광주전남본부 밴드(band)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주자(사업소) 2개를 선정해 이어주게 된다.

임철원 본부장은 "비록 소소하며 작은 것이지만 나도 환경보호캠페인에 한몫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바쁜 이여주기를 통해 "본부와 지사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도 갖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수목장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